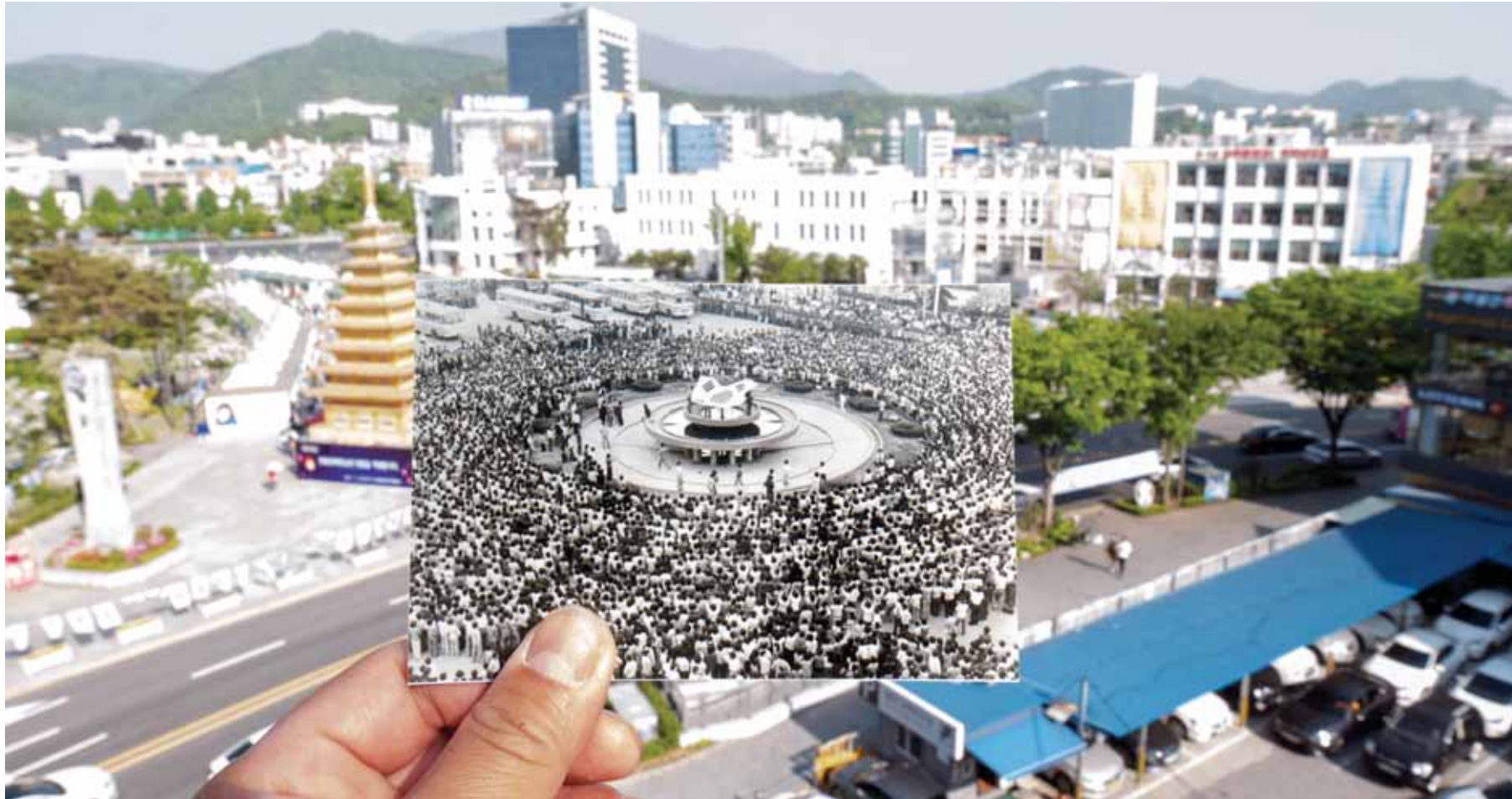


진상규명 이번엔 꼭... 38번째 '오월'



38년 전 뜨거웠던 옛 도청 앞 광장 옛 전남도청 광장은 지금은 평온하게만 보이지만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절정으로 치달았던 1980년 5월의 함성과 고통, 그리고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당시 '민주화대성회'가 열렸던 옛 전남도청 분수대를 촬영한 사진에는 지금도 그날의 뜨거운 열기가 감돌고 있는 듯 하다. 광주일보 취재진은 지난 30일, 5월의 의미를 되새기고 진상규명을 다짐하기 위해 38년 전 민주화대성회를 촬영했던 곳과 같은 위치에서 2018년 5월 금남로의 모습을 영글에 담았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5·18특별법 조사위 구성 본격 착수... 9월 중 출범 발포명령자·헬기사격·암매장 등 진상규명 원년으로

또다시 5월이 돌아왔다. 지역 5월 단체들은 올해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보고 진실이 밝혀져 38년간 유보된 5월 영령들의 한(恨)이 풀리기를 염원하고 있다. <관련 기사 6면>
지난 30일 광주시,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 구성 작업이 본격 착수됐다.

원은 국회의장 추천 1명, 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국회에 추천이 요청된 상황으로, 광주시 등도 적합한 인물을 추천할 방침이다. 조사위는 오는 9월 출범할 예정이며, 이들을 지원하는 실무위원들도 구성된다.

조사위실무지원팀도 광주에 설치된다. 광주시 직원 등으로 구성되는 지원팀은 현장조사, 기록발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사무실은 5·18기념재단 등이 지리한 5·18기념문화센터,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옛

전남도청 별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별법 시행령을 만들기 위해 기초작업을 벌이고 있는 국방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준비 TF'는 지난 18일 광주를 방문해 5월 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기초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법(제3조 진상규명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상규명 현안은 모두 7개다. 조사위는 1980년 5월 당시 군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학살 등 사망·상해·실종·암매장 사건과 인권침해 사건 ▲군의 시민들에 대한 발포(헬기사격 포함) 책임자와 경위, 시민 피해자 현황 ▲'5·11연구위원회' 등 진상왜곡·조작의혹 ▲집단학살지·암매장지 소재와 유해 발굴·수습 ▲행방불명자의 규모와 소재 ▲5·18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와 북한군 침투조사사건▲그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이다.

지난해부터 옛 광주교도소 등에서 행방 불명자 암매장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는 5·18기념재단은 조사를 잠정 중지하고 조사위에 관련 자료 일체를 이관할 계획이다.

지역 5월 단체들은 진상규명의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옥주·차명숙 간접조작, 화염방사기 사용, 유언비어 생산주체, 505보안대 활동 내역, 신군부의 5·18 기획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완전한 진상규명이 된다는 이야기다.

대표적 5월 단체로 꼽히는 5·18기념재단의 이사장 선임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이사장 선임 등을 놓고 마찰을 빚었던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민사회단체(광주진보연대·시민단체협의회·여성단체연합·광주민예총)는 최근 '5·18기념재단 발전협의회'를 공동 구성하기로 합의하며 갈등이 일단락됐다. 이사장은 추천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하기로 했으며, 현재 양측에서 일부 인사를 추천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5월단체 관계자는 "진상규명특별법이 만들어진 만큼 올해가 진상규명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이번에야말로 진상이 밝혀져 38년의 한이 풀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앞당겨지는 북미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도 빨라진다

정와대는 5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한미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 시기와 연동해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관련기사 8면>

정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이 3~4주 내 열릴 것이라고 했다"며 "한미정상회담이 5월 중순에 열리면 너무 바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장소가 좁혀진 만큼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조금 빨리 나오지 않을까"라며 "북미회담 일정을 보고 연동해서 한미정상회담 날짜를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시간) 미시각주 워싱턴에서 열린 집회에서 "북한과의 회동이 오는 3~4주 이내에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실상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5월 중으로 특정한.

정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한미 전문가와 언론에 공개하기로 한 핵 실험장 폐기 현장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핵 실험장 폐기 현장에 IAEA 관계자가 포함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발표는 한미 전문가와 언론에 공개한다고 했는데 국제 관련 전문가라는 용어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제기구 관계자가 될지, 발표문대로 한미 전문가에게 공개될지는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5월 한 달동안 펼쳐질 남북한, 미국, 중국, 일본 등 5자의 외교전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달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담판'이 핵심이라면 5월초 도쿄에서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 이어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은 핵심으로 향하는 길잡이가 될 전망이다.

또 북미 정상회담 직후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 열릴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쳐 종전선언이 현실화하면 한반도 비핵화는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탄력'

국제자산신탁 사업계획서 제출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기업이 광주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사업 진행에 탄력을 받게 됐다.

광주시는 지난 30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국제자산신탁 등 5곳이 접수했고, 다른 4곳의 업체는 30일 마감된 사업계획서 제출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광주시는 민간사업자 공모 의향을 접수한 결과 국제자산신탁 등 5곳이 접수했고, 다른 4곳의 업체는 30일 마감된 사업계획서 제출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땅값만 600억원대에 달하고 개발비용까지 더하면 사업비 총액이 100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한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군부대 포 사격장이었던 어등산 일원(273만6218㎡)에 각종 유휴지와 휴양시설, 호텔, 골프장, 경관녹지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시 최대 현안 중 하나다.

광주시는 지난 10여 년간 담보상태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민간위원회를 개최해 합의안을 마련하고, 상가시설 면적은 2만4170㎡ 이하로 제한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했다.

앞서 광주시는 민간사업자 공모 의향을 접수한 결과 국제자산신탁 등 5곳이 접수했고, 다른 4곳의 업체는 30일 마감된 사업계획서 제출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업계획서 평가 과정에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땅값만 600억원대에 달하고 개발비용까지 더하면 사업비 총액이 100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한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군부대 포 사격장이었던 어등산 일원(273만6218㎡)에 각종 유휴지와 휴양시설, 호텔, 골프장, 경관녹지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일보
부실·늑장 시공에 속타는 시민 ▶ 6면
엔트리 교체...KIA '변화의 5월' ▶ 20면

하나투어 하나팩

소중하고 확실한 행복 무안출발 해외여행

"소중하고 행복한 여행은 매일 무안공항에 있어"

동남아		일본		러시아		중국	
<p>방콕</p> <p>449,000원~</p> <p>방콕/파타야 5일, 6일</p> <p>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p> <p>운항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3박 5일 화요일, 일요일 4박 6일</p> <p>#코끼리레저링 #발마사지 #다이나믹 여행지</p>	<p>다낭</p> <p>699,000원~</p> <p>다낭/호이안/후에 4일, 5일</p> <p>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p> <p>운항일 토요일 3박 4일 화요일 4박 5일</p> <p>#4성급호텔 #투본강투어 #후에전통가</p>	<p>오사카</p> <p>699,000원~</p> <p>오사카/교토/나라 3일, 4일</p> <p>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없음 선택경비 있음</p> <p>운항일 수요일, 금요일 2박 3일 월, 목, 금, 일요일 3박 4일</p> <p>#사승공림 #알찬관광일정 #다양한 특식</p>	<p>블라디보스톡</p> <p>1,599,000원~</p> <p>블라디보스톡 5일, 6일</p> <p>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p> <p>운항일 3박 5일 7/26, 8/2, 8/9 4박 6일 7/29, 8/5</p> <p>#가장 가까운 유럽 #유럽풍의 노란건물들</p>	<p>상하이</p> <p>329,000원~</p> <p>상해/항주/주가가 4일, 5일</p> <p>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p> <p>운항일 수요일 3박 4일 토요일 4박 5일</p> <p>#상하이점 #동양의 베니스 #주가가 뱃놀이</p>	<p>몽골</p> <p>1,599,000원~</p> <p>울란바타르/테를지 5일</p> <p>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p> <p>운항일 3박 5일 7/28, 8/6, 8/10, 8/14, 8/18 4박 6일 8/1</p> <p>#별이 쏟아지는 몽골 밤하늘 #푸른초원#게르속막</p>		

안심결제 캠페인 | Fair Price 공정한 가격, 즐거운 여행 | 단체맞춤여행 인증제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062) 228-1199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통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인,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항공 운임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김바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r.com 참조) ■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r.com 참조) ■ [투본강투어] 투본강투어는 2006년~2013년 (총로구정)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주)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청탁/불만사항 16, 1577-1233/ARS 안내번호 02) ■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편 또는 환급권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체세과금(가)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r.com) 참조.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 | ●여행 유의 ●여행 자제 ●참수 권고 ●여행 금지 ※ 상품은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에서 판매하고 실제 여행주관은 (주)하나투어에 담당합니다.